

20대 여성의 드롭에 따른 체형 연구

박주희¹⁾ · 홍정민¹⁾ · 윤진경²⁾

1) 대구가톨릭대학교 패션산업학부

2) 섬유패션기능대학 패션메이킹과

The Study of Somatotype According to the Drop of Women in Their 20's

Ju-Hee Park¹⁾, Jung-Min Hong¹⁾ and Jin-Kyung Yoon²⁾

1) Dept. of Clothing & Textil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Kyungsan, Korea

2) Dept. of Fashion Making, Cllege of Textile & Fashion, Daegu, Korea

Abstract : This study classifies somatotype from exact measurements according to the women somatotype with different drop value and isfunctional and has high body fitness. This study was preceded in the following process. Took 147 women in their 20's measurement directly and grasped the general body characteristic, and classified somatotype according to distribution of drop. Drop value is classified into Drop I, Drop II, and Drop III. Drop I is the difference value between bust line and waist line measurement. Drop II is the difference value between hip line and waist line measurement. Drop III is the difference value between hip line and bust line measurement. Suggested distribution of somatotype based on drop istribution. Classified somatotype into 4 types according to the mixture of combination of Drop I, II, and III. Comprehended the characteristics of somatotype based on basic statistical data. Type 1, M type, displays 40 % distribution that is most high distribution rate among four types and it is normal type which is similar to average value in size in the this study. Type 2, A type, displays 32.4% and it's a lower half of their body developed type with a flat busted and hippy. Type 3, X type, displays 19% and it's a healthy type with tall height, slender waist and curves of bust and hip lines. Type 4, H type, displays 8.6% and it's a biggest type in size which is busty, full hiped and nearly has no curves of body line.

Key words : measurement, different drop value, high body fitness, characteristics of somatotype

1. 서 론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 기성복 치수는 신장의 증가와 더불어 들레항목의 일률적인 증가로, 키와 가슴둘레 및 엉덩이둘레를 일정한 간격으로 증감시키는 치수규격은 키와 가슴둘레가 동시에 크거나 또는 동시에 작은 여성에게는 적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자신에게 적합한 의류선택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다(김성주, 1998).

대부분의 의류업체에서는 통계적 평균치를 기준 값으로 체형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화된 원형을 사용하고 있어 다수의 소비자들은 의복을 구입하고 자신의 체형에 적합하도록, 보정을 하거나 수선을 하는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체형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는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을 선정하여 의복설계에 반영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의복설계에 있어서 기본부위는 궁극적으로 치수범주가 만들어지는 기본틀을 제공하게 되므로 다른

부위들을 예측할 수 있고, 소비자의 의류 구입시 호수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기본부위는 패턴 제작시 필요로 하는 부위로, 가능한 한 많은 부위를 대표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상관이 높은 부위 이면서 또한 계측이 용이하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부위가 선정되어야 한다(최정옥, 2000).

특히, 몸매의 굴곡이 뚜렷한 20대 여성의 경우 들레항목만으로도 체형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기에 적절한 기준을 선정하여 의복설계에 반영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대 여성의 드롭치에 따른 체형을 분류하여, 적절한 기준을 선정하고, 의복설계의 반영으로 소비자의 제품 치수에 대한 만족도를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계측방법

본 연구를 위한 계측은 2004년 1월 대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에서 29세 미만의 성인여성 147명을 대상으로 1차원적인 직접계측을 실시하여 그 중 자료가 미비한 2명을 제외한 145명을 연구자료로 하였다. 계측기준선과 기준점은

Corresponding author; Jung-Min Hong
Tel. +82-53-850-3534, Fax. +82-53-850-3534
E-mail: jmhong@cu.ac.kr

R.Martin의 인체계측방법(U.S.Department of agricultere, 1941)과 공업진흥청의 KS A 7003(인체계측용어), KS A 7004(인체계측방법)에 준하여 계측하였으며, 용구는 Martin의 인체 계측기(Martin's Anthropometric Instrument)와 줄자를 사용하였고, 보조용구로는 고무벨트, 기준점 표시용 스티커를 사용하였다. 피계측자는 기본적인 속옷으로 브라와 팬티를 착용한 상태에서 좌우 발뒤꿈치를 붙이고 발끝은 좌우로 약 30°내외로 벌리고 선 자세로 좌우 팔을 자연스럽게 내리고 시선은 눈높이를 바라보는 입위정상자세로 하였다. 계측항목으로는 의류치수규격 설정에 필요한 기본항목으로 높이 1항목, 길이 12항목, 둘레 5항목으로 전체 18항목을 계측하였다.

2.2. 연구방법

20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둘레항목을 중심으로 한 직접계측을 실시하여 체간부의 치수적 특징을 제시하고, 드롭값(가슴둘레-허리둘레), (영덩이둘레-가슴둘레), (영덩이 둘레-허리둘레)에 따라 체형을 분류한다. 분류된 체형별 가슴둘레-허리둘레-영덩이

Table 1. 본 연구와 국민표준체위의 비교 (단위 : cm)

계측항목	본 연구(2004)		국민표준체위(1997)		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키	161.10	5.13	160.0	5.0	.214
등길이	38.39	1.77	37.0	2.5	.391
앞길이	40.01	2.22	40.0	2.6	.002
뒤 품	37.06	2.14	35.3	2.2	.820
앞 품	33.36	1.78	30.90	1.8	1.375
어깨끝점 사이길이	40.18	2.02	39.1	2.2	.532
젖꼭지점 길이	23.87	1.88	24.0	1.8	-.067
젖꼭지점 간격	16.58	1.14	15.5	1.4	.943
영덩이 길이	21.66	1.62	20.1	2.4	.958
목밑 둘레	38.55	1.83	36.6	2.0	1.057
가슴 둘레	86.59	7.11	81.7	5.1	.686
허리 둘레	70.45	7.39	65.6	4.9	.654
배 둘레	79.44	7.68	76.1	6.1	.434
영덩이둘레	93.84	6.11	89.2	4.4	.757

이둘레의 관계를 파악하여 신체적 특징을 비교·제시한다.

Table 2. 가슴둘레에 대한 드롭값의 빈도 분포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계
76				2	1			1							4
77					1		1								2
78					1	2		1	1	1	1				7
79			1	1	1		3				1				7
80					2		1			1		1			5
81	1	1		1	2				1	2		2			10
82				1		3	4	1	2	1					12
83				1	2		2		4	2					11
84				1	1	1	1	4	1	1					10
85		1		1		2	2	4		1					11
86					1	2	1	1		1		1			7
87				1	1				2			1		1	6
88				2	1	2	1				1			1	7
89					1	1									2
90				1				1	1	1	1	1			6
91		1		1		1	1	2							6
92						2									2
93	1			1						2		1			5
94				1			1			1					3
95		1		1			1	1	1	1					6
96									1						1
97									1						2
98						2									2
99										2					2
100							1								1
101					1		1								2
103								1							1
104							1				1				2
106						1									1
108				1											1
109														1	1
계	2	4	1	17	16	19	23	17	15	17	5	7	1	1	145
	1.4%			55.2%(Drop 22)					42%(Drop 26)					1.4%	100%

Table 3. 체형구분을 위한 드롭 값의 범위와 분포율

체형구분	드롭 I값의 범위	대표값	명수	비율
드롭 22체형	19~24.9	22	80	55.2%
드롭 26체형	25~29.9	26	61	42.1%

2.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PC를 사용하여 SPSS Package로 처리하였다

기본항목은 각각의 인체체형을 대표할 수 있는 부위로서, 수직적 크기를 대표하는 항목인 '키'와 수평적 크기를 대표하는 항목인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로 설정하여 드롭치의 결과에 따른 체형분류를 위해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값을 드롭I,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값을 드롭 II, 엉덩이둘레와 가슴둘레의 차이값을 드롭 III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차이값에 따라 체형을 유형화하고 전체드롭 I, II, III의 결과에 따른 체형분류를 위해 군집분석을 통하여 유형별 신체형태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직접계측치의 기초통계

Table 1은 본 연구의 직접계측항목의 통계분석자료와 1997년 국립기술품질원에서 발표한 국민표준체위조사 보고서의 20대 성인여성을 동일계측항목에 대한 평균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높이항목의 키와 둘레항목의 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는 다른항목에 비해 표준편차가 큰 것으로 보아 개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고, 1997년의 피험자들에 비해 신장을 비롯하여 길이항목에서 1~2 cm정도 크게 나타났고 둘레항목은 평균값이 다소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같은 연령을 대상으로 한 장수정(2003)의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1997년 보다는 다소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약간의 둘레항목의 평균값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드롭에 따른 인체 계측치 분석

드롭 I값이 큰 경우는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가 큰 체형을 말하고, 드롭 I값이 작은 경우는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Table 4. 엉덩이 둘레에 대한 드롭 값의 빈도 분포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계
83										2		1								3
84							1			1		1								3
85			1			1			1					1						4
86									1			1								2
87								1			2									3
88							1	1	1	1	2	2		2						10
89							1	1	1	2	2	1	2	1		1	1			13
90							1			1	2									4
91									2	2		4	2	1	2	1				14
92	1				1			2	2	2		1		1						10
93		2	1							4	2		2	1		1	1			14
94	1						1				2	2		3	1		1			11
95							1	1		1	2			1	1					7
96									2	2	2			2			1			9
97						1						1								2
98		1								1			1							3
99					1			2	1	1	2									7
100	1				1		1					1	1					1		6
101			1						1											2
102							1													1
103		1				2				2										5
104					1							1		1					1	4
105																	1			1
106															1					1
107		1									1									2
108																		1		1
110											1									1
112				1																1
113												1								1
계	3	5	3	1	3	5	8	6	13	22	19	19	9	13	5	3	5	2	1	145
	2.1%		17.2%(Drop 13)						54.5%(Drop 19)					24.1%(Drop 23)				2.1%		100%

Table 5. 체형구분을 위한 드림 값의 범위와 분포율

체형구분	드림 II값의 범위	대표값	명수	비율
드림 15체형	11~16.9	15	25	17.2%
드림 19체형	17~21.9	19	79	56.6%
드림 23체형	22~26.9	23	35	24.1%

차이가 작은 체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Table 2는 엉덩이둘레 치수에 대한 드림 I값의 빈도 분포이다. 이 분포를 통해 양극간의 빈도 1% 내외의 자료는 버리고 55.2%, 42%의 두 구간으로 나누어 드림값의 범위를 두 가지 체형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가 19~24.9 cm인 55.2%를 ‘드림 22체형’이라 하고,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가 25~29.9 cm인 42%를 ‘드림 26체형’이라 하겠다. 범위와 분포율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드림은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로 3가지 체형으로 구분하였다. 드림값이 큰 경우는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가 큰 체형을 말하고, 드림 II값이 작은 경우는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가 작은 체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Table 4는 엉덩이둘레 치수에 대한 드림 II값의 빈도 분포이다. 이 분포를 통해 양극간의 빈도 3% 내외의 자료는 버리고 17.2%, 54.5%, 24.1%의 세 구간으로 나누어 드림 II값의 범위를 세 가지 체형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가 11~16.9 cm인 경우의 17.2%를 ‘드림 15체형’이라 하고,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가 17~21.9 cm인 경우의 54.5%를 ‘드림 19체형’이라 하겠다. 또,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가 22~26.9 cm인 경우의 24.1%를 ‘드림 23체형’이라 하겠다. 범위와 분포율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드림 III값이 큰 경우는 엉덩이둘레와 가슴둘레의 차이가 큰 체형을 말하고, 드림 III값이 작은 경우는 엉덩이둘레와 가슴둘레의 차이가 작은 체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Table 6은 드림 III의 빈도 분포이다. 이 빈도 분포의 절대적인 체형분류 기준을 정하는 경우, 전체 분포를 바탕으로 등분된 비율로 체형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표준체형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표준의 범위에서 벗어난 체형의 빈도가 적

Table 6. 가슴둘레에 대한 드림 III값의 빈도 분포

	-9	-2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6	계
76														1	1	2			4
77													1		1				2
78								2	1		2	1	1						7
79								1	1		1	2				2			7
80							1							1					5
81				1				1	1	1	1		1	1	3				10
82					1			1		3	3	2		2		1			12
83						1	1	1	2		1	3	1	1					11
84										1	1	3	3	1	1				10
85								2		1	2	1	1	1		1	1		11
86							1		2		2	1	1						7
87									2				2	1					6
88							1			1	1		2	1	1				7
89										1					1				2
90				1	1	2													6
91					1		2												6
92															1			1	2
93						1			2				1	1					5
94		1						1						1					3
95		1					2			1	1				1				6
96				1															1
97							1			1									2
98						1							1						2
99				1				1											2
100						1													1
101			1	1															2
103										1									1
104			1										1						2
106				1															1
108							1												1
109	1																		1
계	1	2	2	5	3	6	13	9	14	12	17	21	12	12	10	4	1	1	145
	0.7			12.4%					44.8%				37.9%						100%

Table 7. 체형구분을 위한 드롭 III값의 범위와 분포율

체형구분	drop 값의 범위	대표값	명수	비율
드롭 2체형	-2~3.9	2	18	12.4%
드롭 6체형	4~8.9	6	65	44.8%
드롭 10체형	9~12.9	10	55	37.9%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분포를 통해 양 극단의 ‘드롭 -9’와 ‘드롭 13~16’의 5% 미만의 자료는 버리고 ISO규격에 맞추

어 드롭 값의 범위를 세 가지 체형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엉덩이둘레와 가슴둘레 차이가 -2~3.9 cm인 경우의 12.4%를 ‘드롭 2체형’이라 하고, 엉덩이둘레와 가슴둘레 차이가 4~8.9 cm인 경우의 50%를 ‘드롭 6체형’이라 하겠다. 또 엉덩이둘레와 가슴둘레 차이가 9~12.9 cm인 경우의 37.9%를 ‘드롭 10체형’이라 하겠다. 범위와 분포율은 Table 7에 나타내었다.

드롭 I, II, III의 치수조합에 따른 빈도 분포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Table 8. 드롭 I, II, III 에 대한 빈도분포

신장	드롭 III	드롭 II						계
		드롭(22)			드롭(26)			
		15	19	23	15	19	23	
155 cm	2	3	0	0	1	1	0	5
		2.3%	0.0%	0.0%	0.7%	0.7%	0.0%	3.8%
		4	5	0	3	7	0	19
160 cm	6	3.0%	3.8%	0.0%	2.3%	5.4%	0.0%	14.6%
		0	10	2	0	1	2	15
		0.0%	7.7%	1.5%	0.0%	0.7%	1.5%	11.5%
165 cm	10	1	0	0	2	2	0	5
		0.7%	0.0%	0.0%	1.5%	1.5%	0.0%	3.8%
		8	6	0	1	15	4	34
160 cm	6	6.2%	4.6%	0.0%	0.7%	11.5%	3.0%	26.2%
		0	16	4	0	0	6	26
		0.0%	12.3%	3.0%	0.0%	0.0%	4.6%	20.0%
165 cm	10	1	0	0	1	1	0	3
		0.7%	0.0%	0.0%	0.7%	0.7%	0.0%	2.3%
		1	3	0	0	6	0	10
160 cm	6	0.7%	2.3%	0.0%	0.0%	4.6%	0.0%	7.7%
		0	7	0	0	0	6	13
		0.0%	5.4%	0.0%	0.0%	0.0%	4.6%	10.0%
165 cm	10	0	7	0	0	0	6	13
		0.0%	5.4%	0.0%	0.0%	0.0%	4.6%	10.0%
		18	47	6	8	33	18	130(100%)
계	13.8%	36.2%	4.6%	6.2%	25.4%	13.8%		
		71(54.6%)			59(45.4%)			

Table 9. 체형별 기초통계

(단위 : cm)

부위	M체형		A체형		X체형		H체형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키	161.1	4.55	160.5	5.04	163.6	5.34	161.1	4.78
등 길이	38.0	1.73	38.1	1.28	38.6	1.86	39.4	1.66
앞 길이	39.9	1.93	39.4	1.59	40.1	1.70	41.3	2.75
뒤 품	36.7	2.04	36.8	2.11	36.8	1.80	38.9	1.95
앞 품	33.0	1.58	33.1	1.41	33.2	1.72	34.4	1.65
어깨끝점 사이길이	39.9	1.99	40.2	2.06	40.0	1.50	41.3	1.71
진동 길이	17.1	1.26	17.5	0.95	17.0	1.41	18.5	1.00
젖꼭지점 길이	23.5	1.69	23.4	1.43	23.6	0.98	25.0	1.47
젖꼭지점 간격	16.3	0.97	16.3	1.00	16.3	0.93	17.5	1.03
어깨끝점허리앞중심점길이	39.8	1.98	39.3	1.78	40.2	2.72	41.6	3.18
어깨끝점허리뒷중심점길이	41.3	2.39	41.3	1.90	42.2	1.54	42.4	2.29
엉덩이 길이	21.6	1.56	21.8	1.97	22.1	1.39	21.1	0.84
무릎 길이	58.1	2.72	57.7	2.63	59.4	3.30	57.7	3.24
목밑 둘레	38.3	2.04	38.4	1.68	38.3	1.76	39.6	1.24
가슴 둘레	85.6	6.26	84.2	5.93	84.2	4.65	95.4	6.93
허리 둘레	68.3	6.39	70.1	5.65	66.6	5.12	78.7	6.35
배 둘레	77.8	7.42	78.5	6.42	77.5	5.77	85.8	7.05
엉덩이 둘레	91.9	6.11	94.1	5.60	94.7	4.94	97.1	5.99

20대 여성의 체형의 분류를 드롭값의 차이에 따라 같은 엉덩이둘레에 대한 가슴둘레가 ‘드롭 6’이고, 허리둘레가 ‘드롭 19’인 체형을 M체형, 같은 엉덩이둘레에 대한 가슴둘레가 ‘드롭 10’이며 허리둘레가 ‘드롭 23’인 체형을 A체형, 같은 엉덩이둘레에 대한 가슴둘레가 ‘드롭 10’이며 허리둘레가 ‘드롭 26’인 체형을 X체형, 같은 엉덩이둘레에 대한 가슴둘레가 드롭 2이며, 허리둘레가 ‘드롭 15’인 체형을 H체형이라 하겠다.

Table 8에 나타난 바와같이 같은 키의 구간으로 드롭 III가 ‘드롭 6’을 나타내고, 각각의 드롭 I값에 드롭 II가 ‘드롭 19’를 나타내는 M체형이 42명으로 40%를 나타내었다. 드롭 III가 ‘드롭 10’을 나타내고, 각각의 드롭 I값에 드롭 II가 ‘드롭 19’를 나타내는 A체형이 34명으로 32%를 나타내었다. 드롭 III가 ‘드롭 10’을 나타내고, 각각의 드롭 I값에 드롭 II가 ‘드롭 19’를 나타내는 A체형이 34명으로 32%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20대 여성의 체형은 160 cm정도의 키에 표준체형에 가까운 M체형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다음으로 같은 신장에 허반신이 굵은 A체형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형분류에 따른 M, A, X, H체형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계측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Table 9에 제시하였다. M체형은 본 연구의 기초통계인 Table 1에 제시된 평균값과 비교해 보았을 때, 키를 비롯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들레항목에서 1~2 cm정도 작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A체형은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차이가 ‘드롭 10’을 나타내어 상체와 하체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었고, 본 연구의 기초통계의 평균값과 비교해 보았을 때, 등길이는 A체형의 평균값과 0.2 cm의 차이로 큰 차이가 없는데 반해 앞길이는 A체형이 0.7 cm의 차이를 나타내어 A체형의 앞길이가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A체형이 가슴이 작아 그에 따르는 신체 곡선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X체형은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차이가 ‘드롭 10’으로 상체와 하체의 차이가 상당히 크고,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가 ‘드롭 28’로 하의치수에서도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기초통계의 평균값과 비교해 보았을 때, 키가 2 cm이상 크고, 허리둘레가 3.81 cm나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X체형은 대체로 키가 크편이며, 가슴과 엉덩이가 뚜렷하고, 허리가 잘록한 체형임을 알 수 있다. H체형은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차이가 ‘드롭 2’로 상체와 하체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가 ‘드롭 19’로 하의치수끼리의 차이는 중간정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본 연구의 기초통계의 평균값과 비교해 보았을 때, 키는 평균 값과 유사하나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에서 8 cm이상이 크고, 엉덩이둘레에서 5이상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H체형은 엉덩이와 가슴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며, 상반신이 크고 치수적으로도 가장 굵은 체형임을 알 수 있다.

3.3 체형별 실루엣

각 체형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실루엣을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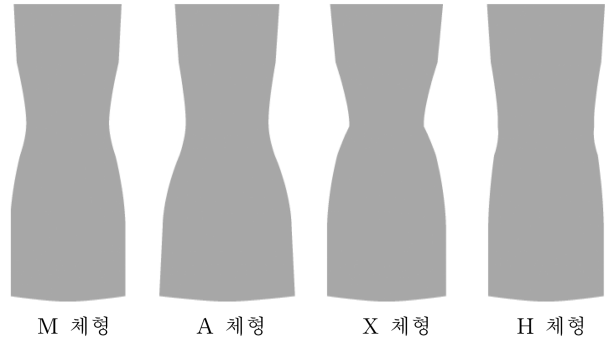


Fig. 1. 체형별 실루엣.

에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체간부의 수평적 크기를 대표하는 들레항목(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을 설정하여 몸매의 굴곡이 뚜렷한 20대 여성의 체형을 드롭치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직접계측항목의 통계분석자료와 1997년 국립기술품질원에서 발표한 국민표준체위조사 보고서의 20대 성인여성을 동일계측항목에 대한 평균을 비교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1997년의 피험자들에 비해 신장을 비롯하여 길이항목에서 평균값이 다소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들레항목의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평균값이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드롭치의 차이에 따른 체형분류를 위해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차이값에 따라 4체형으로 유형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형 1인 M체형은 네 유형 중 가장 많은 분포율인 40%를 나타내며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차이값이 6을 나타내며 드롭 I, 드롭 II의 범위도 중간값인 드롭 22, 드롭 26이고 치수상으로 본 연구의 평균값과 유사하므로, 평균체형이라고 할 수 있다.

유형 2인 A체형은 32.4%로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차이값이 드롭 10을 나타내며, 드롭 I, 드롭 II의 범위가 중간값을 나타낸다. 가슴이 작고 엉덩이가 큰 허반신 발달 체형이라 할 수 있다. 유형 3인 X체형은 19%로 허리가 잘록하고 엉덩이와 가슴이 큰 굴곡을 가졌고 치수상으로 큰 키에 다소 건강한 체형이다.

유형 4인 H체형은 8.6%로 가슴이 크고 허리가 굵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드롭치가 적어서 굴곡이 거의 없는 특징을 가졌고, 치수상으로 가장 굵은 체형이다.

참고문헌

국립기술품질원 (1997)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

- 국립기술품질원 (1998) 국민표준체위 조사결과에 따른 체형분류 및 연구.
- 권숙희 (1994) 여대생 의복설계를 위한 체형분류 및 인대제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에린 (1998) 20대 여성의 상의류 제작에 필요한 체형별 사이즈 스펙 및 그레이딩 편차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심정희·함옥상 (1998) 여대생 의복설계를 위한 상반신 체형 분류 및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22(3), 321-332.
- 이순원·김구자·남윤자·노희숙·정명숙·최경미·최유경 (2002) “의복 체형학”. 교학연구사, 서울.
- 이정임 (2001) 한국인 여성의 표준체형에 관한 연구-18~24세 여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임·남윤자 (2002) 18~24세 한국인 여성의 표준체형에 관한 연구(제2보) -표준 프로포션과 표준체형에 대하여-. *한국의류학회지*, 26(6), 801-810.
- 전정혜 (2004) 20~30대 여성의 신체특성과 체지방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명숙 (1994) 성인 여성 체형의 분류 및 연령층별 특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유경 (1997) 여성 체형의 형태적 분류 및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정옥 (2000) 여성복의 연령별, 체형별, 패턴 그레이딩 편차 설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岡部和代, 山名信子, 山本和枝 (1993) 成人女子のシルエット分析と年齢の特徴を表すシルエットの評価. *日本繊維製品消費科學誌*, 35(9), 491-498.
- 平澤和子, 長井 久美子 (1993) 成人女子のつきの分類(第2報). *日本家政學會誌*, 44(9), 761-767.
- 古松生, 岡田宣子, 有馬澄子 (1989) 成人女子體刑の特徴を表す要因の抽出と年齢的變化. *日本家政學會誌*, 40(10), 919-925.
- (2005년 4월 20일 접수)